

대한민국-스페인 육군 군가 비교 연구

: 가사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박 소 영**

(육군사관학교 교수)

이 강 호***

(육군사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육군 군가를 대상으로, 양국 군가의 가사 구조를 도출하고 가사에 함의된 가치의 표현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가는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전의 앙양, 애국심 고무를 목적으로 제작된 노래이다. 군가 가사는 군의 존재 목적을 규정하고 장병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군가의 가사 구조와 의미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군대 문화와 군인정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군가를 비교하는 것은 양국의 군대 문화와 군인정신을 이해하여 국방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의 대표 군가 총 20곡을 대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구조에 기초하여 군가 가사 텍스트를 분석하고 가사 구조를 도출한다. 이어 군가 가사에 함의된 가치 의미를 탐색하고 어휘 표현양상을 비교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육군 군가의 가사 구조와 가치 의미를 분석하여, 양국의 군대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 군가, 가사 구조, 가치 의미, 군대 문화, 군 정체성

* 본 논문은 2023년도 육군사관학교 장병가치문화연구센터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23-가치문화-연구소-07).

** 제1저자

*** 교신저자

1. 머리말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육군 군가를 대상으로, 양국 군가의 가사 구조를 도출하고 가사에 함의된 가치의 표현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가(軍歌)는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부르는 노래”(표준국어대사전)로, 군인들이 제창 형태로 부르는 “노랫말이 있는 군대음악”(정성엽 2016:16)으로 정의된다. 군가 가사는 군대 생활과 전투 활동을 담고 있으며, 이는 장병들의 ‘애국심 고무, 사기 진작, 소속감 배양, 단결심 도모, 전의 고취 등’의 수단이 된다.¹⁾ 군가 가사라는 설득 메시지를 통해 군대는 장병들의 공감과 이해를 유발하고, 그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여 군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군가는 군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군대 문화(military culture)를 창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군대의 정체성과 상징문화의 근저에 자리한 정신전력이라는 무형전력을 이해하기 위해, 군가를 연구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군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는 크게 ‘군가 가사의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와 ‘군가 가창의 활성화를 모색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²⁾ 군가 텍스트 분석에 천착한 전자는 가사에 담긴 함축된 메시지를 설명하고 표현 방식을 비교하여 군가의 기능과 역할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반면 군악대 출신 연구자들이 주도한 후자는 군가 가창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가 가창의 실제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두 유형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군가의 가치와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1) 김세훈(2020:126), 박교선(1989:6), 박양호(2010:263), 쓰지다 마사노리(2015:2), 이흥렬(1975:51), 정성엽(2016:13) 참조.

2) 군가 가사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로 김세훈·이영주·이환수(2019), 김세훈(2021가, 2021나), 김영준(1969), 박순제·이승철(2016), 박재권(2001, 2003, 2010), 오보영·이영주(2009), 이강호(2022), 최영호(2000), Gier(2008), Ucherek(2011)을, 그리고 군가 가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로 강진순(2017), 김세훈·양준상·양정학(2018), 김세훈·이환수(2018), 김윤영·남경호(2022), 김호석(2002), 백영기·김영식(2018), 손동역(2003), 이하영(2017), 장상윤(2008), 정재은(2022), 정훈공보실(2017)을 각각 들 수 있다.

어 군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와 외국 군가 가사에 함축된 군대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육군의 주요 군가를 대상으로, 이들 군가의 가사 구조와 가치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육군 10대 군가³⁾(10곡)와 스페인 육군의 주요 군가⁴⁾(10곡)의 가사 텍스트를 대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⁵⁾을 방법론으로 하여 군가 가사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구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육군 군가 텍스트를 분석하고, 군가 가사 구조를 <처음-중간-끝>으로 구분하여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한다. 둘째, 군가 가사에 함의된 양국 육군 가치의 상징 의미를 탐색하고 어휘로 표현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셋째, 양국 군가 가사를 분석한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
- 3) 육군이 지정한 10대 군가는 ‘행군의 아침(1951), 진짜 사나이(1962), 용사의 다짐(1973), 전우(1973), 팔도 사나이(1975), 진군가(1976), 멋진 사나이(1981), 전선을 간다(1981), 아리랑 겨레(1986), 최후의 5분(1986)’이다.
- 4) 스페인 육군이 명시적으로 지정한 주요 군가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스페인 육군 홈페이지(<https://www.defensa.gob.es/fuerzasarmadas/et/>)에 탑재된 군가 목록과 스페인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이 생도생활 간 필수적으로 가창하는 군가 목록을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군가를 ‘스페인 육군 주요 군가’로 설정하였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Sangre roja* (연도미상, S1), *Himno de Infantería*(1909, S2), *La banderita*(1919, S3), *¡Viva el Ejército español!*(1920, S4), *Tercio Heroico*(1921, S5), *Novio de la muerte*(1921, S6), *Soldadito español*(1927, S7), *Himno de la Academia General Militar*(1974, S8), *Canción de los guerrilleros*(1977, S9), *La Muerte no es el final*(1981, S10). 분석의 편의를 돕고자 가사 출처는 괄호 안의 숫자로 제목을 대신한다.
- 5)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은 수사적 기술을 논거발견술(*inventio*), 논거배열술(*dispositio*), 표현술(*elocutio*), 기억술(*memoria*), 연기술(*actio*)로 구분한다(박성창 2000:39). 이들 가운데 “목적 지향적 음악”(박재권 2010:166)이라 할 수 있는 군가의 가사 구조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거발견술, 논거배열술, 표현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논거발견술과 논거배열술은 군가 가사 구조 분석에, 그리고 표현술은 군가 가사에 투영된 가치를 분석하고 어휘의 표현양상을 밝히는 데 적용된다(이강호 2022:369-370).

II. 대한민국-스페인 군가 가사 구조 분석

1. 대한민국 육군 군가 가사 구조

대한민국 군가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군대 문화를 반영하기에 정형화된 형식을 띤다.⁶⁾ 이렇게 고착화된 군가는 공통적인 가사 형태를 보이는데, 가사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처음> → <가운데> → <끝>’의 3단계로 구분된다.

〈표 1〉 대한민국 육군 10대 군가 구조

구조	내용	주요 표현
처음	아름다운 국토 유구한 역사 장병의 존재	높은 산 깊은 물, 푸른 숲 맑은 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끈기 있게 이어온 한 핏줄 사나이로 태어나서, 겨레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뜨 거운 전우애로 뭉쳐진 우리들
가운데	임무 인식 전술 전기 연마	나라(겨레) 지키는 영광, 조국을 지키는 보람, 꿋꿋 피 조국에 바쳐, 꿋꿋 피 조국에 바쳐 충성을 다하리 라 다짐했노라, 한목숨 바칠 것을 다짐했노라 훈련과 훈련 속에, 거뜨히 총을 메고, 배낭 메고 구두 끈을 굳이 매고서
끝	치열한 전투 실시 결속, 다짐	전투와 전투 속에, 진군에는 밤낮이 없다, 오랑캐 내 쫓고자 강행군,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 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싸움에는 천하무적 새로운 나라 세우는, 압록강까지 밀고 나가자, 나라를 위해 땀땀이 피고 질 용사들,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 드세, 조국을 굳게 지키리, 자유와 번영의 나라

논거발전술과 논거배열술에 입각하여 군가 가사의 구조를 위 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처음> ‘육군 장병들은 누구인가?’(존재) → <중간> ‘육군 장병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임무) → <끝> ‘육군 장병들은 무엇을 지향하는가?’(목표)에 해당한다.

6) 김세훈(2021가:291), 이지수·정계룡(2020:105) 참조.

대한민국 육군 군가 가사의 텍스트는 거의 동일한 배열을 보이며, 대부분 다음의 구조를 갖는다. 이때 구조 내 순서는 앞뒤로 바뀔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생략되기도 한다.

- ① 우리나라는 국토가 아름답고 역사 또한 유구하다.
- ② 우리는 조국 수호의 사명감으로 육군의 용사가 되었다.
- ③ 우리는 대한의 아들로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 ④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한다.
- ⑤ 우리는 적과 맹렬히 싸워 전투에서 승리한다.
- ⑥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자유, 번영에 이바지하자고 다짐한다.

여기서 ①, ②는 가사 구조 <처음>에, ③, ④는 가사 구조 <가운데>에, ⑤, ⑥은 가사 구조 <끝>에 각각 해당한다.

2. 스페인 육군 군가 가사 구조

스페인 군가 가사는 대한민국 육군 군가와 달리 정형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식을 띤다. 형식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길이’이다. 대한민국 군가는 짧게는 4행, 길게는 8행인데 반해, 스페인 군가는 짧게는 10행에서 길게는 56행까지 다양하다. 또한 후렴구가 가사의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 군가와 달리, 스페인 군가는 <처음>, <중간>, <끝>에 자유롭게 배치되며 연결되는 서사가 존재하기에 분절된 1절, 2절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가사 구조 내 순서는 일부 다를지라도, 스페인 군가에서도 아래와 같은 가사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표 2〉 스페인 주요 군가 구조

구조	내용	주요 표현
처음	장병의 존재	스페인 육군 병사, 아프리카 땅의 스페인 용사, 영웅적인 연대병, 용감한 군단병, 스페인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 스페인의 아들들, 어린 소년, 생도들, 유격병
가운데	임무 인식 전술·전기 연마 치열한 전투 실시 죽음 승리 확신 보상	규율, 명예, 의지, 용기, 신과 조국은 진리, 스페인을 위한 죽음은 크나큰 영광, 훈련과 단결, 충성과 복종, 규율과 희생, 전투의 선봉에 있어야 하니 너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잘 훈련된 분대에서 무자비하고 잔혹한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 미쳐 날뛰는 적군의 밀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죽음으로 나아간다 총탄에 피 범벅되어도, 그 또한 스페인을 위한 것 널 보러, 네 곁으로 가고자 난 죽음의 신랑이 되었소 승리는 너의 것 따스한 손길, 멈추지 않으리 그를 다시 살리셨고, 빛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끝	역사와 전통의 땅 결속, 다짐	톨레도 학교에서, 카스티야 귀족의 대서사시로 스페인, 고결한 이달고의 땅, 불패의 연대, 용맹의 군단, 전몰자가 슬프게 올던 곳, 형제가 생명을 바친 곳, 배반이 복수를 청하는 곳, 사라고사는 피로 승리했다 스페인의 명예와 영광에 걸맞은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한다, 스페인의 영광을 위해 내 목숨 바치네, 최후의 순간까지 힘을 모아 싸우리

스페인 군가의 <처음>에서도 ‘장병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논거발견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10곡 가운데 가톨릭 신부의 곡을 군가로 차용한 ‘Ei muerte no es el final(죽음은 끝이 아니야, S10)’ 1곡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군가의 <처음>에 소개되는 ‘아름다운 국토’에 대한 언급은 스페인 군가에서는 많지 않다(4곡). 더욱이 <처음>에 ‘땅’을 언급한 군가는 ‘아프리카(tierra africana)’ 파병 장병에 대한 노래 1곡(S1) 외에는 없다.

반면 국토에 대한 언급은 스페인 군가에서 대부분 <끝>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유구한 역사에 대한 언급 역시 1곡(S4, “Sus hazañas crearon nuevos mundos, Con la espada y la Cruz los conquistó 그 위업 신세계를 창조하였고, 칼과 십자가로 신세계를 정복했다”)을 제외하고는 <끝>에서 출현하고 있다(S2, “en la Academia Toledana [...] con la épica nobleza castellana 톨레도 학교에서 [...] 카스티야 귀족의 대서사시로” / S8, “Honor y gloria para España, Zaragoza con sangre ganó 스페인의 명예와 영광, 사라고사는 피로 얻었다”).

한편 스페인 군가에는 치열한 전투와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언급이 <가운데>의 주를 이룬다. 즉, ‘장병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페인 군가의 대답은 승리,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장병들의 죽음과 죽음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열심히 ‘훈련’을 하지만, 스페인의 장병들은 총과 검으로 적군을 죽여야 한다. 적을 죽임에도 승리가 불확실하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바로 스페인 장병들의 임무인 것이다. 이를 위해 <가운데>와 <끝>에서 죽음에 대한 보답을 언급한다. 조국의 영광을 위한 장병들의 피가 헛되지 않음이 개인적인 차원(사랑하는 여인), 조직적인 차원(소속 부대), 국가적인 차원(조국)의 승리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장병들은 죽음에 대한 신의 보답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다. 다시 말해, 스페인 군가는 치열한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장병들이 조국과 신의 품 안에서 편안히 눈을 감는다고 칭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El muerte no es el final(죽음은 끝이 아니야, S10)’는 ‘전몰자 송가(Himno de los caídos)’로도 불리는데, 가사에서 직접 “하느님(Señor)”을 언급하며 전우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종교적 구원의 메시지를 군가로 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페인 군가의 <끝>은 매우 다양한 주제 형식을 담고 있다. 승리는 앞으로의 승리가 아닌 이미 거둔 승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 장병이 살아있다면 미래의 승리에 대한 중용과 다짐이 혼재된 가운데 승리의 주제가 표현되고 있다.

3. 대한민국과 스페인 육군 군가 가사 구조 비교

양국의 군가 가사를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스페인 군가는 모두 논거발견술, 즉 ‘장병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군가를 시작한다. 그리고 가사의 구조적 위치는 일부 다르더라도 ‘장병의 임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논거배열술의 관점에서도 ‘장병이 지향하는 바’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도 양국 군가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대한민국 군가와 달리 스페인 군가에서는 전형적인 공통 구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가는 <처음>에서 아름다운 국토를 노래하여 그 국토수호의 당위성을 장병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 군가에서 이러한 언급은 없고 설사 일부 있다 하더라도 장병이 소속된 부대가 위치하는 장소, 혹은 그 장소가 가진 역사성이 <끝>에서 언급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육군의 최종 목표에 있어 대한민국 군가는 죽음을 논거 배열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논하지 않으나, 스페인 군가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을 <가운데>와 <끝>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I. 대한민국-스페인 군가 가사에 표상된 가치 분석

본 장에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육군 군가를 대상으로, 가사에 표상된 양국 육군의 가치를 비교 분석하고 어휘의 표현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기술 가운데 ‘표현술’을 중심으로 양국의 군가 가사에 표상된 표현을 설명하겠다. 앞서 우리는 군가 가사 구조가 ‘논거발견술’과 ‘논거배열술’에 기초하여 확립된 형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에 본 장에서는 발견되고 정돈된 논증을 언어화하는 작업, 즉 적절한 말로 표현하는 기술인 ‘표현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현술은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어휘와 적절한 비유로 답론을 구체화하여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이다. 국가를 막론하고 육군이 추구하는 가치는 ‘충성, 헌신, 책임, 용기, 단결, 명예’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⁷⁾ 육군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기는 군대의 참군인이 지향해야 할 정신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치들이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육군 군가 가사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충성(忠誠)

충성은 군인이 조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수호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성은 자신에게 진실하고 엄격한 ‘자신에 대한 충성’, 명령에 복종하고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상관에 대한 충성’,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구분된다. ‘충성’의 가치는 전투 및 전쟁 승리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대한민국 육군 군가에서 ‘충성’의 가치는 ‘나라, 조국, 이기다, 충성, 승리’와 같은 어휘로 표현된다.

- (1) 가. 나라: 우리는 언제든 나라를 위해(전우 3절),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팔도 사나이 3절),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아리랑 겨레 1절)
- 나. 조국: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전우 1절), 조국을 굳게 지키리(팔도 사나이 2절)
- 다. 이기다: 싸우면 이기는 그 신념으로(전우 3절),
- 라. 충성: 놀러쓴 철모 밑에 충성이 불타고(진군가 1절), 충성을 다 하리라 다짐했노라(용사의 다짐 1절)
- 마. 승리: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티라(최후의 5분 1절),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최후의 5분 1절), 전우여 이제는 승리만

7) 이들 가치는 장병들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 역할과 토대를 기반으로 한다.

이 우리의 사명이요 갈 길이다(용사의 다짐 후렴)

스페인 군가에서 이 가치는 ‘충성(lealtad), 신(Dios), patria(조국), mujer(여인), bandera(깃발), victoria(승리)’ 등으로 표현된다.

- (2) 가. lealtad, leal(충성, 충실한): Lealtad y abnegación(충성과 복종, S9), mi leal compañera(나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여, S9)
- 나. Dios(신): ¡Dios y Patria es la verdad! (신과 조국은 진리이다!, S4)
- 다. fiel(신실): Aún te queda la fiel Infantería (아직까지 네게는 충실한 보병이 남아 있음을, S2)
- 라. Patria, patrio(조국, 조국의): Y de amor patrio henchido el corazón, Entonemos el Himno Sacrosanto(애국심으로 부푼 가슴으로, 신성불가침의 노래를 부르자, S2), la Patria defenderemos(조국, 우리가 지킨다 S9)
- 마. mujer(여인): una divina mujer(천상의 여인, S9)
- 바. bandera(깃발, 국기): Y su amor fue mi Bandera(그 사랑은 내 국기였네, S9)
- 사. besar(입맞추다): han besado tu bandera(깃발에 입맞춘, S2)
- 아. victoria(승리): La victoria fue tuya(승리는 너의 것, S7)
- 자. tuyo(너의 것): Escucha, España, [...] almas que son tuyas(들여라, 스페인이여, 너의 것인 영혼들, S2)

충성(lealtad)은 충성의 대상인 ‘조국(Patria)’과 그 은유표현인 ‘국기(bandera)’로 표현된다. 그리고 스페인 군가에서 충성의 대상은 조국을 넘어 신(Dios)에 대한 충성으로 확대되는데, 이때 신은 ‘십자가(cruz)’로 상징된다. 이와 반대로 조국의 개인적인 차원인 ‘애인/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은유적으로 ‘사랑(amor)’이 사용된다. 여기서 장병은 연인에게 ‘충실’하고, 조국의 ‘소유’이자 신의 ‘소유’인 충성스러운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S3의 제목인 ‘La banderita’의 ‘banderita’는 스페인어 ‘bandera’(깃발)의 축소형인데, 이를 통해 깃발에 대한 스페인 장병들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빨간색과 황금색의 스페인 깃발은 자체로 ‘피’와 ‘영광’을 의미하여 조국에 대한 장병들의 충성심을 고취하는 대상이다. 한편 장병

이 속하는 부대의 깃발(부대기)은 보다 작은 단위의 집단에 대한 충성의 대상이 된다. 또한 대문자 ‘Bandera’의 경우는 스페인의 특수부대인 레히온 군단(La Legión)에 속한 테르시오 연대(El Tercio)와 그 휘하의 반데라 대대(La Bandera)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bandera’라는 개별 장병의 사적 연인(mujer, compañera)이기도 하고 그가 속한 군조직(Bandera)이기도 하며, 그의 조국(Patria), 나아가 신(Dios)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충성은 전쟁의 ‘승리’로, 깃발을 ‘수호’하거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은 모두 충성을 강조하는 다층적 은유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헌신(獻身)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은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무한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군인은 목숨을 걸고 국가와 민족을 구하고, 부하와 동료들 위해 희생해야 한다.

전우와 부대,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는 대한민국 육군 군가에서 ‘바치다, 고통, 아픔, 피, 숨지다’ 등의 어휘로 표현된다.

- (3) 가. 바치다: 한목숨 바칠 것을 다짐했노라(용사의 다짐 1절)
 나. 고통, 아픔: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최후의 5분 1절)
 다. 피: 젊은 피 스며든 그때 그 자리(전선을 간다 2절), 남아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용사의 다짐 1절)
 라. 숨지다: 젊은 녀 숨져 간 그때 그 자리(전선을 간다 1절)

이들 표현은 스페인 육군 군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4) 가. ofrecer, dar, consagrar(바치다): A mi Patria ofrezco cuanto soy(내 조국에 내 전부를 바친다, S4), donde el caído lloró angustiado, donde el hermano la vida dio(전몰자가 슬프게 울던 곳, 형제가 삶을 바친 곳, S5)
 나. dolor(고통, 아픔): Si al luchar, caes herido en tu mente, no hay dolor(싸우다, 다쳐 쓰러져도 네 머릿속에 고통은 없다!, S1)
 다. sangre(피): Sangre y vida daís en su honor(너희들의 피와 생

명 스페인의 영광을 위해 내놓는다, S5), Con la sangre que vierten sus hijos, Más frondoso el laurel brotará(아들이들 토해내는 피로, 무성한 월계수 싹 틔우리라, S5)

라. morir, Caer(죽다, 쓰러지다): Contentos tus hijos irán a la muerte(너의 아들들은 기쁘게 죽음을 향해 갈 것이다, S2), Que es gran gloria morir por España(스페인을 위해 죽는 것은 크나큰 영광, S5), Legionarios a luchar, a morir(군단병 싸워라, 죽어라, S5)

현신의 가치는 스페인 군가에서 더욱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대한민국 군가는 ‘열심히 싸워 승리할 것’을 노래하는 반면, 스페인 군가는 ‘승리를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을 강조한다.

3. 책임(責任)

육군은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군인은 필승의 신념과 임전무퇴의 기상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은 생사를 초월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또 이를 완수한다.

대한민국 육군 군가에서 ‘책임’의 가치는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어휘 ‘지키다, 책임’로 표현된다.

(5) 가. 지키다: 너와 나 겨레 지키는 결심에 살았다(진짜 사나이 2절),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전우 1절), 부모 형제 지키는(용사의 다짐 2절), 우리도 언젠가는 문힐 이 땅을 소중히 가꾸며 지켜나가세(아리랑 겨레 2절), 조국을 굳게 지키리(팔도 사나이 2절)

나. 책임: 책임을 다하는 방패들이다(전우 2절)

스페인 육군 군가에서도 임무 완수에 대한 책임이 언급되는데, 그 방식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은유적 표현은 아래의 예와 같이 ‘국기’, ‘깃발’ 등과 같은 상징과 결부되어, ‘깃발을 수호하다’, ‘깃발에 맹세하다’, ‘깃

발을 구하다'와 같이 표현된다.

- (6) 가. defender(지키다): Quanto más duro era el fuego, y la pelea más fiera, defendiendo a su Bandera, el Legionario avanzó(불길이 험할수록, 전투가 격할수록, 기(대대)를 지키며, 군단병은 진격했다네, S6)
- 나. jugar, prometer(맹세하다, 약속하다): Te prometen ser fieles a la historia(그들 역사에 충성을 너에게 약속한다, S2), La bandera juré(깃발에 맹세했지, S4)
- 다. rescatar(구하다): La enseña rescató(부대기를 구해냈지, S6)

4. 용기(勇氣)

육군 장병은 필승의 신념으로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 상황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사를 걸고 적과 싸워야 하는 육군 장병들에게 필요한 가치가 바로 용기이다. 용기는 육체적 고통이나 생명의 위협 등을 인내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어진 책무를 용감하게 완수함으로써 승리를 가능케 한다.

대한민국 육군 군가에서 '용기'의 가치는 전투와 연관되어, 임전무퇴의 각오, 전투기동, 최후의 일전 등을 나타내는 '용기, 주먹, 나가다, 끝까지 싸우다, 버티다' 등의 어휘로 표현된다.

- (7) 가. 용기: 즐기치게 샘솟는 새로운 용기(용사의 다짐 2절)
- 나. 주먹: 주먹을 두 주먹을 힘껏 쥐고서(행군의 아침 2절)
- 다. 나가다: 높은 산 깊은 물을 박차고 나가는(진군가 1절), 폭풍우 몰아치고 어둠이 와도 거친 들 험한 숲을 헤쳐나간다(진군가 2절)
- 라. 끝까지 싸우다: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최후의 5분 후렴)
- 마. 버티다: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티라(최후의 5분 1절)

스페인 군가에서도 '용기'의 가치가 표현된 문장은 많다. 그러나 10곡 중 6곡은 용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페인 육군가'(S4)나

특수부대인 레히온 군단과 페르시오 연대가(S5, S6)에서는 용기를 표현하는 어휘가 다수 출현한다.

- (8) 가. bravura, bravo(용맹, 용맹한): Tercios invictos, Legión de bravos(불패의 연대병, 용자들의 군단, S5), Donde vuestra bravura siempre acudió(너희들의 용맹함이 언제나 출몰했던 곳, S5)
- 나. 용기, 용감한(valor, valiente): voluntad y valor(의지와 용기, S4), soldadito valiente(용감한 병사, S7)
- 다. 대담(audaz): Legionario tan audaz y temerario(그토록 대담하고 저돌적인 군단병, S6)
- 라. sin temor(두려워 않고): Y sin temor al empuje del enemigo exaltado(날뛰는 적의 밀침을 두려워하지 않고, S6)
- 마. fin(끝): esperaré mi fin(내 마지막을 기다리겠다, S8), siempre luchará hasta el fin(항상 끝까지 싸우겠다, S8)
- 바. saber morir(죽는 법을 알다): supo morir como un bravo(용자로 죽는 법을 알았니, S6), Por saber morir, sabe vencer(죽는 법을 알아, 이기는 법을 안다, S2)

스페인 군가에서 용기는 전투에 임하는 용기도 있지만,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도 있다. 이때 ‘용기’의 가치는 ‘책임’의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스페인 육군 장병의 책임이 국가를 지키는 ‘행위’를 넘어 승리라는 ‘결과’에 목적이 있으므로, 자기희생으로 ‘책임’을 다하는 ‘용기’, 즉 승리를 위해 ‘죽을 줄 아는(saber morir)’ 용기가 중요한 가치로 제시된다.

5. 단결(團結)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육군 장병 모두가 굳게 단결하면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강화된 정신전력은 전쟁 승리의 핵심 요소이자 진수가 된다. 단결의 핵심에는 전우애(戰友愛)가 있다. 장병들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에서 기인한 운명공동체적 전우애로 똘똘 뭉친 육군 부대야말로 이기는 군대의 진정한 모습이 된다.

대한민국 육군 군가에서 장병들이 공유하는 운명공동체적 연대감을 의미하는 ‘단결’의 가치는 ‘우리, 하나, 함께, 한 가족, 전우애, 뭉치다, 한마음’ 등의 어휘로 표현된다.

- (9) 가. 우리: 우리는 전우애로 굳게 뭉쳐진(전우 2절), 우리는 언제든 나라를 위해(전우 3절), 우리의 등 뒤에 조국이 있다(진군가 후렴),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최후의 5분 1절)
- 나. 하나: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아리랑 겨레 1절)
- 다. 함께: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르며(전우 1절), 기쁜 일 고된 일 다 함께 겪는(전우 2절)
- 라.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팔도 사나이(팔도 사나이 1절)
- 마. 전우애: 뜨거운 전우애로 뭉쳐진 우리들(팔도 사나이 2절), 우리는 전우애로 굳게 뭉쳐진(전우 2절)
- 바. 뭉치다: 우리는 전우애로 굳게 뭉쳐진(전우 2절),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아리랑 겨레 1절), 뜨거운 전우애로 뭉쳐진 우리들(팔도 사나이 2절)
- 사. 한마음: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팔도 사나이 3절)

반면, 스페인 군가에서 ‘단결’의 가치는 대한민국 군가에 비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페인 혹은 서양 문화권의 개인주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전투 승리의 방식은 나와 네가 힘을 합쳐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라면, 스페인에서 전투 승리는 죽음을 불사한 개개인들의 투지로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0) 가. unión, unido(단결, 단결하여): En unión y hermandad sin igual, y unida siempre luchará hasta el fin(비교불가의 단결과 형제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되어 싸우리, S8)
- 나. compañero, compañerismo(동료, 전우애): Trabajo y compañerismo, lealtad y abnegación, disciplina y sacrificio, nuestras virtudes son(훈련과 전우애, 충성과 복종, 규율과 희생, 이것이 우리의 미덕, S9), Cuando la pena nos alcanza por un compañero perdido(전우를 잃어 슬픔이 찾아올 때, S10)
- 다. hermano, hermandad(형제, 형제애): valientes hermanos(용감

한 형제들, S5), donde el hermano la vida dio(형제가 목숨 바친 곳, S5)

문법적인 차원에서도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군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 육군 군가는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 즉 인칭대명사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진술한다. 그러나 스페인 군가 10곡 가운데 온전히 1인칭 시점으로만 진행되는 곡은 3곡(S4, S8, S9)에 불과하며, 주로 2인칭(너/당신, 너희들)과 3인칭(그)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관찰자의 시점에서, 혹은 인칭이 혼재된 대화체 양식으로 가사가 전개된다.

한편, 혈연의 형제와 친구가 명확히 구분되는 ‘전우’라는 한국어와 비교해 볼 때, 스페인어의 ‘hermano(형제)’의 쓰임은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은 자국민 외에도 “no habéis nacido en España(스페인에서 태어나지 않은, S5)” 중남미와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도 군에 입대할 수 있다. 반대로 스페인 본토 출신의 장병들도 아프리카 등과 같이 자신이 나고 자란 땅이 아닌 이베리아반도 외부에서 조국을 지켜야(S3)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predilectos(선택받은 S5)”, “hijos(아들들, S5)”, “hermano(형제)”로 호명하는 것은, ‘혈연’과 ‘우정’을 분리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다양한 출신의 병사들에게 일종의 인위적인 혈연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6. 명예(名譽)

‘명예’는 육군 장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군인답게 사 고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말한다. 군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국가와 국민, 군을 먼저 생각하며 정의롭게 행동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진정한 명예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육군 군가에서 ‘명예’의 가치는 ‘명예, 영광, 자유, 번영, 사명, 자랑, 보람’ 등의 어휘로 표현된다.

(11) 가. 명예: 너와 나 진짜 사나이 명예에 살았다(진짜 사나이 3절)

나. 영광: 최후의 5분에 영광은 달렸다(최후의 5분 2절)

- 다. 자유와 번영: 벌써 좋다 자유와 번영의 나라(팔도 사나이 3절)
- 라. 사명: 전우여 이제는 승리만이 우리의 사명이요 갈 길이다(용사의 다짐 후렴)
- 마. 자랑: 국군 용사의 자랑을 가슴에 안고(진짜 사나이 2절)
- 바. 보람: 부모 형제 지키는 보람에 산다(용사의 다짐 2절)

그리고 명예의 가치는 ‘간성, 서광, 꽃’과 같은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12) 가. 간성: 힘차게 일어선 겨레의 간성(팔도 사나이 3절)
- 나. 서광: 이 강산 위에 서광을 비추고자(행군의 아침 1절)
- 다. 꽃: 아리랑 가슴에 꽃을 피우세(아리랑 겨레 후렴)

스페인 육군 군가에서도 ‘명예’의 가치는 중요하다. 아래 예문 가운데 스페인 보병가(S2) 가사 중에는 보병의 가치를 열거하며 마지막으로 명예(honor)를 다시 한번 재창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13) 가. honor(명예): Entonemos el Himno Sacrosanto. Del deber, de la Patria y del Honor, ¡Honor!(신성불가침의 노래를 부르자, 의무, 조국, 명예의 노래를, 명예!, S2), Si morir por ti preciso fuera, combatiendo por tu honor, orgulloso esperaré mi fin(널 위해 죽어야 한다면, 네 명예를 위해 싸우며, 자랑스럽게 내 마지막을 기다리겠다, S8)
- 나. gloria(영광): Honor y Gloria de la Raza, tus cadetes España serán(인종의 명예와 영광, 스페인이여, 너의 생도들이 될 것이다, S8)
- 다. orgullo, orgullos(자랑, 자랑스러운): Soy soldado del glorioso ejército(나는 자랑스러운 스페인 육군 용사, S4), Sois el orgullo de nuestra España(너희들은 스페인의 자랑, S5)
- 라. laurel(월계관): Más frondoso el laurel(더 풍성한 월계수, S5), laureles nuevos(새로운 월계관, S8)
- 마. corona(왕관): haremos coronas que España, Que en sus sienas augustas pondrá(스페인의 존귀한 머리에 왕관을 씌울 것이다, S5)

대한민국 군가에서 ‘명예’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은 스페인 군가에서는 개인 차원과 국가 차원으로 구분되어 보다 명확하게 표상된다. 후자는 ‘월계관’이나 ‘왕관’, ‘영광’ 등으로 표현되는 반면, 전자는 이성 간의 사랑, 종교적인 영생 등과 같이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랑하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내 땅에서 세세손손 살아갈 내 형제자매의 안녕’과 같은 집단적인 보상과는 달리, 개인적인 희생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muerte de pena [...] tu novia morena(고통으로 죽은⁸⁾, 네 사랑하는 여인, S7)”나 “Por ir a tu lado a verte, mi más leal compañera, me hice novio de la muerte(네 곁으로 가고자,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는 죽음의 신랑이 되었네, S6)”과 “habéis ganado su excelso amor(지고의 사랑을 얻었네, S5)”와 같은 사적인 사랑의 보답의 차원에서 “La Patria, [...] le devuelve agradecida el beso que recibió(조국은 받았던 입맞춤 감사히 그에게 돌려주네, S2)”에서와 같이 조국의 차원으로 확대된다. 나아가 ‘El muerte no es el final(죽음은 끝이 아니야, S10)’은 가톨릭 신부가 작사한 곡을 군가로 차용한 곡으로, 군가를 가창하는 장병들은 하느님(Señor)과의 대화를 통해 “le has devuelto a la vida, le has llevado a la luz(그를 다시 살리셨고, 빛으로 인도하셨다)”, “no va a faltarnos tu amor(하느님의 사랑이 충분하다)”, “muriendo vivimos vida más clara y mejor(죽음으로 더 밝고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영생의 보람을 얻게 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육군 군가의 가사 구조를 도출하고, 가사에 함의된 가치의 표현양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의 주요

8) 여기서 ‘muerte de pena’는 중의성을 배제한 직역으로, 문자 그대로 ‘고통으로 죽은’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여인’을 ‘조국’이나 ‘죽음’으로 상징해 보면, 이는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물리적 죽음이 아닌 은유표현이 된다.

육군 군가 20곡을 대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구조에 기초하여 가사 구조를 도출하였고 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스페인 육군 군가에 함의된 가치(충성, 헌신, 책임, 용기, 단결, 명예)를 중심으로, 이들 가치가 양국의 군가 가사에서 어떤 어휘로 표현되고 있는지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사 구조의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스페인 육군 군가 가사는 모두 <처음>에서 장병의 존재를 밝히는 논거발견술 상의 유사성은 있으나, 스페인 군가에서 죽음과 보상이 <중간>에, 역사와 땅이 <끝>에 배치되는 등 논거배치술에서는 차이성이 발견된다. 한편 가치 표현의 측면에서, 양국의 육군 군가 가사는 공통적으로 ‘충성, 헌신, 책임, 용기, 단결, 명예’의 가치를 추구하였으나, 그 표현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이를 장병들의 ‘존재(<처음>), 임무(<중간>), 목표(<끝>)’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에서 표상하는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과거 조상들이 지켜낸 땅에서 현재 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조국을 지켜야 하는 한민족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장병들은 동일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유하지 않고 각기 다른 땅에서 나고 자란 스페인이라는 개념적 조국을 공유하며 추상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아들들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군가는 <처음>에 아름다운 국토와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고 <다짐>으로 끝나는 구조를 채택하지만, 스페인 군가에서는 이러한 구조상의 전형성이 나타나지 않고 국토나 역사에 대한 강조 역시 자주 언급하지 않는다.

둘째, <중간>에서 제시하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장병 모두의 공통적인 임무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리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승리를 위해 강인한 훈련과 단결심으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스페인 장병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더 큰 명예를 위해 죽더라도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따라서 가사 구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군가는 <중간>에 장병들의 훈련을 다루고, <끝>에서 앞으로의 다짐을 언급하나, 스페인 군가는 <중간>에 치열한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언급되고 있다.

셋째, <끝>에서 기술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장병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 통일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비록 전

장에서 전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호한 조국에서 그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미래의 아들, 딸이 통일과 발전된 국가라는 영광을 향유하리라는 굳은 믿음이 군가 근저에 자리한다. 그러므로 <끝>에서 항전의지를 불태운다. 그러나 스페인의 장병들은 군가 전개상 조국의 영광을 보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마저도 그들에게 ‘조국’은 자신의 혈연 상의 조국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지상에서 미래 발전은 큰 보람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따라서 <끝>에서 천상의 더 나은 삶, 자신의 죽음을 기억할 명예, 영광과 같은 이상 등의 지향점을 향한 다짐을 언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스페인 군가의 가사 구조와 가치 표현양상이 다른 것은 양국의 문화 근저에 존재하는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문화는 스페인보다 집단적이다. 대한민국 장병들은 전우와 ‘함께’ 전투를 치르고, 지켜야 하는 대상 역시 ‘부모·형제’, ‘조국’, ‘고향’ 등으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참전한다. 이에 반해 스페인 장병들은 개인적으로 전투 승리를 위해 죽는다. 지켜야 하는 대상 역시 ‘님’, ‘조국의 명예와 영광’ 또는 ‘신’이며, 자신의 ‘명예’나 ‘부활’ 등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군가는 나와 전우, 즉 ‘우리’의 시점으로 군가를 가창하지만, 스페인 군가의 가창자는 군인이지만 ‘나’의 시점보다는 우리를 바라보는 ‘너’, ‘당신’, ‘그’의 시점으로 가사를 부르거나 그들과 대화하는 형태로 제창한다.

둘째, 스페인 장병 구성은 대한민국보다 다양하다. 대한민국 장병은 단군 이래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나이’로 한정되나, 스페인 장병은 이베리아반도와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와 같이 과거 스페인제국의 영토 출신의 다양한 인종의 ‘스페인인(Raza)’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처럼 ‘단결’과 ‘전우애’의 가치 추구가 이들에게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의 존재가 군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스페인 군가는 대한민국 군가보다 상징적이다. 대한민국 군가에는 장병이 처한 자연환경과 전투환경이 간결한 문체로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스페인 군가에는 ‘사랑’, ‘깃발’, ‘부대상징’, ‘십자가’와 같이 사적인 사랑과 종교적 전통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죽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군가는 언급하지 않거나 ‘(꽃이) 피고 지다’로 표현될 정

도로 금지되나, 스페인 군가에서는 ‘죽어라!’라는 명령형 문장이 사용할 정도로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이고도 빈번하게 언급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육군의 주요 군가를 대상으로, 가사 구조의 전형적 특성과 육군 핵심가치의 표현 어휘를 비교하고 설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군가 비교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은 물론, 외국 군대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비교 대상을 확대하여 공시적 차원의 군가 비교 연구는 물론, 전쟁사를 통해 시대별로 가창된 군가를 연구하는 통시적 차원의 분석으로 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군가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군대 문화 비교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진순(2017), 『군가 활성화를 위한 장병 의식 조사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세훈(2020), 「해병대 비공식 군가의 카니발적 특성」, 『음악논단』 43권,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125-163.
- _____ (2021가), 「군가의 대화성 연구: 육군 10대 군가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7권 2호, 육군사관학교, 282-304.
- _____ (2021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시대별 창작 군가의 가사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 9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3-126.
- 김세훈·양준상·양정학(2018), 「군악대를 활용한 정신전력교육 방안 연구: ASSURE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4권 3호, 육군사관학교, 129-156.
- 김세훈·이영주·이환수(2019), 「육군 부대가의 구조언어학적 분석」, 『한국군사학논집』 75권 2호, 육군사관학교, 121-138.
- 김세훈·이환수(2018), 「군 장병 군가 가창 활성화 연구」, 『정신전력연구』 53권, 국방정신전력원, 243-274.
- 김영준(1969), 「군가에 나타난 군인상과 그 보급책: 구 일본군가를 중심으로 한 분석」, 『육군』 132권, 육군본부, 34-41.
- 김윤영·남경호(2022), 「군악대 교육기관 설립방안 연구」, 『한국예술문화연구』 2권 1호, 한국전통예술협회, 65-82.
- 김호석(2002), 「국방부국악대의 창설과 실태」, 『한국음악사학보』 29권, 한국음악사학회, 217-246.
- 박교선(1989), 『우리나라 군가의 조사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창(2000),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 박순제·이승철(2016), 「한국의 사회변동과 해군·해병대 군가의 특색 연구」, 『해양연구논총』 47권,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131-145.
- 박양호(2010), 『한국전쟁과 시, 군가, 뼈라』, 도서출판 화남.
- 박재권(2001), 「구 일본 군가의 군인의 덕목에 관한 표현 분석」, 『육사논문집』 67권 2호, 육군사관학교, 75-99.

- _____ (2003), 「자위대가의 군사관련 표현 분석 -구 일본 군가와와의 대조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1권, 한일군사문화학회, 157-183.
- _____ (2010), 「육군 사단가에 나타나는 어휘의 특징」, 『한일군사문화연구』 9권, 한일군사문화학회, 165-190.
- 백영기·김영식(2018), 「군악대의 문화예술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1권 2호,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91-111.
- 손동역(2003), 『육군군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가창지도요원 육성에 대하여』,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쓰지다 마사노리(강천신 외 역)(2015), 『세계군가전집: 군가의 가사로 읽는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시대』, 길찾기.
- 오보영·이영주(2009), 「독일 제3제국의 군가에 대한 고찰」, 『한국군사학논집』 65권 1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49-69.
- 이강호(2022), 「대한민국 육군 부대가 가사 연구」, 『인문언어』 24권 2호, 국제언어인문학회, 365-394.
- 이지수·정계룡(2020), 「역대 국방부장관 취임사의 수사적 특성 연구」, 『화법연구』 50권, 한국화법학회, 71-108.
- 이하영(2017), 『신세대 병사를 위한 음악 활용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흥렬(1975), 「군가의 중요성과 군가의 어제와 오늘」, 『정훈』 21권, 국방부 정훈국, 50-56.
- 장상윤(2008), 『한국 육군 군가교육에 관한 연구: 신병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성엽(2016), 『군가이야기: 승리의 외침, 우리들의 노래』, 디자인인트로.
- 정재은(2022),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군악대의 활용 방안 연구」, 『한국예술문화연구』 2권 1호, 한국전통예술협회, 117-137.
- 정훈공보실(2017), 『군가 가창 지도법』, 육군.
- 최영호(2000), 「한국 해군 군가의 사회 역사적 변화 연구」, 『해양연구논총』 25권,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35-76.
- Gier, Christina(2008), “Gender, Politics, and the Fighting Soldier’s Song in America during World War I,” *Music & Politics* 2:1, 1-21. DOI: <https://doi.org/10.3998/mp.9460447.0002.104> (검색일: 2023.9.10.)

Ucherek, Bogumił(2011), “The axiological structure of American military songs and its correlations with the genre’s compositional patterns,” *Papers and Studies in Axiological Linguistics*, ed. by Zdzisław Wąsik(2011), Wrocław: Philological School of Higher Education in Wrocław Publishing, 165-178.

스페인 국방부 홈페이지 <https://www.defensa.gob.es/fuerzasarmadas/et/>
(검색일: 2023.9.10.)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Army Military Song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pain: With a
Focus on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Lyrics

Soyoung Park, Kangho Lee
Korea Military Academy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yrics of army military songs from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Spain, with the intention of examining their lyrical structures and exploring the underlying values that they convey. Military songs play a pivotal role in boosting the morale, instilling patriotism, and fostering unity among military personnel; thus shaping the identity of a nation's armed forces.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analyzing the lyrical structure and meaning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a nation's military culture and the mentality of its soldiers. In this context, a comparative study on military songs from South Korea and Spain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cultures and identities of their respective armed forces. Moreover, it contributes to enhancing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nation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s the lyrics of 20 representative military songs from both countries, applying Aristotle's rhetorical structure and exploring the implied values, and comparing them based on lexical expression patterns.

Key words: Army military song, lyrical structure, values, military identity,
military culture

90 비교문화연구 제70집(2023.10)

■ 논문투고일 : 2023. 09. 10

■ 심사완료일 : 2023. 10. 10

■ 게재확정일 : 2023. 10. 11